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OPENING CEREMONY & GENERAL INFORMATION

개막식 및 행사안내

2012. 5. 15 ~ 18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청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City Hall

주최 Hosts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Organizers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Promotion Committee

후원 Supported b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네스코
UN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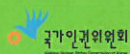
APCEI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인권재단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Contents

개회사 02
Opening Remarks

환영사 06
Welcoming Remarks

축사 09
Congratulatory Speeches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소개 20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ntroduction

행사개요 및 일정 24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Schedule

참가자 소개 34
Participants Profile

참고자료 45
References Documents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존경하는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 강경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님, 카렌 체 국제정의 연대 대표님을 비롯한 인권운동가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인권도시와 인권기구 대표님과 국내외 귀빈 여러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빛고를 광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148만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오랫동안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민주도시 광주의 시장으로써 여러분에게서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애정 어린 동지애를 느낍니다.

오늘의 뜻 깊은 포럼은 작년 광주가 개최한 세계인권도시네트워크의 「광주인권도시선언」에서 '광주가 인권도시를 국제적으로 증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제안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숭고한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한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 그 동안 쌓아온 인권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몸부림쳤던 지역입니다.

절대왕권시절에는 농민들이 기본적 권리운동, 제국주의의 식민통치기간 중에는 독립운동을, 독재권력 시절에는 민주주의 항쟁을 격렬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입니다.

저는 19년 전인 1994년과 1995년 바로 이 고장 광주시장을 지낸 바 있고, 2010년 7월 시장으로 다시 취임한 이후 광주공동체가 가야할 큰 방향의 하나를 모범적인 인권도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KANG Un-tae
Mayor, Gwangju Metropolitan City

인권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참여와 소통 위에서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도시 광주는 모든 폭력과 차별의 철폐는 물론 시민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각기 갖고 있는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갖춘 공동체입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지구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일상에서 인권이 녹아내리고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 광주는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인권지표와 인권지수를 개발했으며 지표별 중장기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매년 그 이행실태를 평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이 부각된 저소득계층의 취업, 외국인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장애인, 노인, 여성의 문제를 집중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공동체 구현에는 시민의 주체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헌혈운동, 범죄와 교통사고 줄이기, 온실가스 감축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나아가 군사독재 권력의 인권유린에 맞서 싸웠던 광주 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도시 광주의 소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인권운동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가치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인권도시로서 광주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인권도시, 인권기관과 NGO의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광주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금 광주가 떨치고 있는 아프리카 모기장 보내기 운동도 이 같은 실천적 연대의 한 고리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을 UN인권이사회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UN과 함께 도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적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듯이 광주는 그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공존과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3박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도시와 인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인권도시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를 후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32주기가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기념식과 함께 5·18정신을 기리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5·18국립묘지 등 사적지 방문과 함께 멋과 맛의 고장, 예술의 고장 광주 정취도 흠뻑 느끼고 가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를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에서 편안하고 보람 있는 여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Honorable Ms. Lee Hee-ho, President of Kim Dae Jung Peace Center, Ms. Kang Kyung-wha,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s. Karen Tse, CEO of International Bridges to Justice, human rights activists, delegations of human rights cities and organizations worldwide,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I extend my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to Gwangju, a cit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and a village of light, on behalf of the 1.48 million Gwangju citizens. I would like to share my great respect for your dedication and enthusiasm for attaining human rights as mankind's universal values.

As the Mayor of Gwangju, and as a long-time guardian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 feel affectionate bonds of camaraderie as if seeing old friends.

Today's forum has crucial implications for following the Gwangju Declara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ities Network 2011 to call for Gwangju's ongoing launch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as a global platform for further advancement of human rights cities.

Delegations of cities advocating lofty spirit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now converge on Gwangju to spread the experiences and values of human rights.

Gwangju has desperately fought and struggled throughout Korean history to fulfill the value of human rights.

Gwangju became the center of the peasants' revolt for basic rights in an absolute monarchy,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colonial rul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democratic uprising against the Korean dictatorship. That is why Gwangju is known as a cit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19 years ago, I held office as the Mayor of Gwangju

for the year 1994-1995, and in July 2010 I was sworn in again, thereby setting Gwangju's grand vision for an exemplary human rights city and taking a wide range of actions at the municipal level.

Gwangju City endeavors to solidify its identity as a human rights city and to build a vibrant human rights community driven by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aim of ensuring civic happiness.

I envision that the human rights city Gwangju will become a community equipped with the systemic foundation for the eradication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nd the maximum fulfillment of individual potentials in a daily life.

Beyond a simple manifesto, it embodies the tangible practice of human rights led by citizens worldwide as human rights take root and permeate in their everyday life.

Gwangju City already developed human rights indicators and indexes to gauge the level of human rights. Accordingly, it sets the mid and long-term targets by indicator, thereby conducting annual evaluation and overhaul of specific target fulfillment status.

Gwangju City gives priority to issues newly emerging during the rapid economic boom, including the employment of low-income classes, protec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casual labor, and other issues facing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women.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close existing loopholes to prevent any intrusion on individual human rights. But, citizens should also play a leading role in building a human rights community. Therefore, Gwangju City focuses on citizen-led voluntary services, blood donation campaigns, curtailment of crimes and traffic accidents,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Moreover, Gwangju City turns and elevates fierce civic enthusiasm against the military regim'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to a creative energy for local development and national future, in the belief that it conforms to the mission of the human rights city Gwangju.

Honorable human rights leaders and distinguished guests!

During this forum, I expect to learn from your accumulated experience and wisdom about the values of human rights.

Gwangju will be guided into its role and responsibility as a human rights city, thereby paving the way for strong solidarity with other human rights cities, organizations, and NGOs.

Of course, Gwangju City will take the initiative in such process, anytime, anywhere, and in any situation. As part of life-saving efforts against malaria, Gwangju City actively campaigns for the donation of mosquito nets to Africa. This clearly illustrates Gwangju's practical solidarity activities.

Gwangju City pushes for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n conjunction wi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reby evolving this forum into a global forum on cities and human rights in solidarity with the UN.

As evidenced by inclusion of the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Gwangju City inherits the spirit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n a creative way while seeking coexistence and harmony by sending a joint team of South and North Korea to the 2015 Summer Universiade.

Despite a short period of four days and three nights, I expect this forum to remain a meaningful gathering in line with its theme: 'City and Human Rights' by precisely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cities and seeking way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ose cities.

Two days later we will mark the 32th anniversary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lso known as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 commemoration ceremony and many other programs are being prepared to honor the spirit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f your time allows, please be present during those commemorative events. In addition to your visit to historic relics like the May 18th National Cemetery, I hope you can fully relish Gwangju's attractive charms as a city of style, delicacies, and arts.

Once again, I convey my deepest welcome and gratitude to you all for visiting Gwangju City, and I wish you a comfortable and worthwhile stay here in Gwangju.

Thank you.

존경하는 국제인권도시와 기구·단체 대표자 여러분
리에 함께 하신 인권운동가와 내빈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 성지인 우리 광주에서 '2012 세계인권도
시포럼'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148만 광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
니다.

먼저 세계평화와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를 방
문하신 데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운태
시장님과 박경서 교수님을 비롯한 세계인권도시포럼추
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
과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쟁
취하기 위해 군부독재에 맞서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시
민 의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인권은 누구
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
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였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한반도 역사 발전을 앞당긴 고
귀한 투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화를 열망하
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희망의 증좌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인권운동가와 내빈 여러분
정의를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했던 광
주가 이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토대로
세계평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메카가 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피부색과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윤봉근 광주광역시회 의장
YOON Bong-geun
Chairman,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있으며 국가와 지역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전 비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어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권도시와 운동가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권 지도자 여러분 모두 온 인류가 인종, 종교 그리고 국가를 초월해 동등하게 존엄 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계기로 위대한 광주의 5월 정신이 인권과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새로운 역사로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Address Honorable delegates of human rights cities and organizations worldwide, human rights activists, distinguished guests!

Today's forum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Gwangju City, the Mecca of Korean democracy. On behalf of the 1.48 million Gwangju citizens, I extend my deepest congratulations on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held in Gwangju City.

First and foremost, I convey my immense respect for your commitment towards world peace and human rights, and I heartily welcome you all to Gwangju City.

My sincere gratitude and credit go to Kang Untae, Mayor of Gwangju City, Professor Park Kyung-seo, and all the staff and personnel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Promotion Committee for their wholehearted preparations for this forum.

As you well know,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represents a heroic and victorious revolt of Gwangju citizens and students to safeguard human dignity and defend liberty and justice against the Korean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time.

Despite the considerable sacrifice of citizens, it clearly manifests the inviolability of human rights as natural rights and universal values of mankind.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s highly acclaimed as a grand struggle behind the historical breakthroughs on the Korean Peninsula, consequently becoming a beacon of

hope for democratic advocates in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Dear human rights activists worldwide and distinguished guests!

Beyond such historical testimony to the victory of justice, Gwangju City embodies the lofty spirit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n this Mecca for global peace, a city that will advance human rights,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world faces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grounds of race, gender, religion, and political affiliation amid ongoing occurrences of cross-border and intra-regional disputes.

Half a century ago, Korea experienced the tragedy of an internecine war. As the one and only nation currently on a cold war footing, it now cherishes a fervent desir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will seek concerted actions to share and spread the experiences and values of human rights cities and activists, thereby making a huge contribution to world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Today I urge human rights leaders worldwide to join the process of equal dignity for all, regardless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ity, by pledging your capacity and wisdom hereto.

I hope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can revive the spirit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by open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peace, and reunification.

I wish health and good fortune for you all!

Thank you.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 강경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카렌체 IBJ대표 그리고,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지도자와 광주시민 여러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곳 광주는 충절과 의로움의 도시입니다. 멀리는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치하의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고비마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위해 싸워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광주에서 국내외 인권도시와 인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포럼을 통해서 인권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권도시의 제도와 장치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선도적인 일입니다.

더불어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내는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인권전담 기구를 만들고 인권교육 실시, 인권현장 제정, 인권지표 개발 등 인권이 시민들 사이에 뿌리내리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인권도시 모델로 국제사회에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기간 동안 논의되는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세계 도처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광주는 문화적 토양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멋과 예향의 도시입니다. 또한 남도의 풍부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광주에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LEE Hee-ho
Chairperson of the Board of
Kim Dae-jung Peace Center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강운태 시장과
주관단체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Honorable KangUn-tae, Mayor of Gwangju
City, Ms. Kang Kyung-wha,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s. Karen Tse,
CEO of International Bridges to Justice, Mr. Yoon
Bong-geun, Chairman of Gwangju City Council,
human rights leaders world wide, and Gwangju
citizens.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everyone on
the 2nd annual sess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held in Gwangju City here in South
Korea.

Gwangju is a city of unswerving loyalty and
righteousness. It has struggled for human dignity
and justice at every historic juncture acros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Joseon era,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0.

Against this backdrop, this forum has great
significance for Gwangju City to bring together
representatives of human rights cities and
organizations worldwide for extensive sharing of
human rights experiences.

This forum will provide a guideline for human
rights cities and lead us to discuss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ools for human rights cities,
thereby guiding us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Moreover, this forum is a meaningful gathering to
deposit the funds raised by the campaign for the
donation of mosquito nets to Africa.

Gwangju City has installed an exclusive agency
dedicated to human rights affairs while promoting
human rights education, the enactment of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Indicator on the platform of human
rights expansion among its citizens. Such efforts are
well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odel for human rights cities.

I expect active discussion during this forum which
can facilitate the mutual exchange of valuable
experiences as well as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cross the globe.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Gwangju is a city of artistic taste and flavor on a
footing of cultural abundance and artistic
attainments. It is also noted for Namdo's native
delicacies made from homegrown foodstuffs.

I hope you will fondly remember Gwangju after
your stay here.

Once again, I convey my immense gratitude to the
Honorable Mayor Kang, Un-tae and other
organizers for your wholehearted preparations for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I wish
all of you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존경하는 시장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Mrs. (이리나 보코바)를 대신하여 2012년 세계 인권도시포럼에서 개최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먼저 여러 기관들 특히, 광주광역시와 한국 정부 부처 그리고 전세계 참가 도시에게 특별히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행사를 지원해 주신 광주광역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광주가 동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의미 있고 적절한 선택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목표는 전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유네스코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권은 영구적인 평화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인권 중심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도시를 포함하여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은 2006년 방콕 시청과 유네스코 방콕 본부가 공동 주최한 “통합사회를 위한 지역 회의”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의 목표 또한 전세계 인권 도시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목표와 유사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교류와 논의 및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자 하는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김광조 UNESCO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장 방콕, 태국
 KIM Gwang-Jo
 Regional Director,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Bangkok, Thailand

및 모든 공공 분야에서 시민의 인권 존중과 기본적 자유권 행사를 보장하는 좀 더 폭넓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현재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몰디브,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한국, 필리핀,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지역의 20개국에서 4000여 도시가 차별반대 도시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가의 도시들도 가입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주거 및 고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반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능력 함양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별반대 10대 규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10대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종주의와 차별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 모니터링
2. 도시와 지역사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제공
3. 포괄적 사회 개발
4. 인종주의와 차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5. 도시 거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참여 촉진과 권한이양
6. 도시 스스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 겸 서비스 제공자가 되도록 촉진
7. 도시를 평등한 기회 제공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양성
8. 교육을 통한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한
9. 문화 다양성 제고
10. 인종주의자의 자국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예방 및 대응

이러한 규약은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다양한 회의와 워크샵, 회담에서 도출되는 성과를 통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과 도시 거주자들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열망과 포괄적인 사회와 사회 통합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강

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도 개발하게 됩니다. 도시와 지방정부 및 커뮤니티를 포괄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계획 이행에 대한 최선의 정책과 계획 및 관행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다양한 컨설팅 메커니즘에 차별반대 아젠다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 회의를 개최하는데 협력해 온 저의 동료이자 유네스코 인문과학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콕 사무소(RUSHSAP)의 Sophia(소피아) 프로그램 담당자가 올해 신설된 시장상과 같은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해 연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공을 기원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에 참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cellencies;

Dr. Taeck-soo Chun, Secretary-General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r. Kang Un-tae,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Honor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deliver this opening address at the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Allow me to express UNESCO's sincere appreciation to the organizers, in particular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ther Korean government unit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UNESCO is also grateful to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their support which made possible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on this occasion as well.

Choosing the City of Gwangju as venue for these two important events is a significant and fitting tribute to this city which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Korea. The city been regarded as a vanguard of the nation's democracy, resulting from a democratic uprising in May 1980, when civil demonstrations were staged in the city against the newly-installed military government led by Chun Doohwan. Two important testaments in recognition of the city as a sacred ground of democracy, and in memory of the martyrs of that fateful day, are the Bell of Democracy in downtown Gwangju and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The goals of this Forum are to promote human

rights and peace around the world? goals which UNESCO fully share? and for which the Organization endeavours to continue working with all partners, in particular cities,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centred on human rights ; human rights to promote all forms of democracy that build lasting peace.

The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APCAP) was established during the Regional Conference of Cities for an Inclusive Urban Society, hosted by the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BMA) and UNESCO Bangkok in August 2006. Its goal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ity Forum's, that is, to enhance city-to-city collaboration and exchanges with human rights cities across the world.

The APCAP is a network of cities and municipalities that meet, discuss, share ideas, experiences, and act together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ir policies to counter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is allows for a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greater social inclusion of city dwellers in full respect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of public lif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4,000 members from 20 countries in the region : from Australia, Bangladesh, Cambodia, China, Fiji, India, Indonesia, Kiribati, Maldives, Nepal,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Republic of Korea, Philippines, Solomon Islands, Sri Lanka, Thailand, Viet Nam and Republic of Uzbekistan. And we hope to welcome more cities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here today.

A Ten-Point Plan of Action relating to Asia and the Pacific was developed, covering different areas of competencies to local authorities, such as education, culture, housing and employment. These are:

1. Assessing racism and discrimination and monitoring municipal policies;
2. Providing political leadership at the city and community levels;
3. Promoting an inclusive society;
4.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 victims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5. Facilitating greater participation and the empowerment of city dwellers through access to information;
6. Promoting the city as an equal opportunities employer and service provider;
7. Promoting the city as an active supporter of equal opportunity practices;
8. Challenging racism and discrimination through education;
9.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10. Preventing and overcoming racist incitement and related violence.

These are plans of action for which strong commitment is shared by many cities. This commitment will be further enhanced by the expected outcomes from Dialogues, Workshops and Conferences, thereby increasing mayors' and their constituents' apprecia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together and awareness of how to promote an inclusive society and social harmony; develop leadership to address issues of discrimination; share best practices, policies and plans to initiate projects of social inclusion in their cities, municipalities and communities; and put discrimination on the agenda of various consultation mechanisms especially city and municipal councils.

My colleague, Sophia, from the Regional Unit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RUSHSAP) has cooperated with many municipal governments to hold some prev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several countries in the region, and will speak to you about other initiatives such as the Mayors Prize which will be launched this year.

Another colleague, Danny, will give you an update on UNESCO Bangkok's activities related to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will conclude in 2014.

In closing, let me wish you a productive forum, and thank you for joining UNESCO in its work to promote peace and democracy.

Thank you!

5월의 빛고를 광주에서 세계의 인권도시간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세계인권도시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구촌 또는 다문화 시대에서의 도시는 기존의 한 국가라는 공간에서의 정체성과는 다른 새로운 인권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스페인,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헌장」이나 유럽의 350개 도시들이 비준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라는 지역단위에서 인권을 도시공동체의 중심가치이자 규범으로 설정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려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권도시를 정책목표로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인권헌장과 인권조례 제정, 인권도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권도시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흐름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인권도시를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도시는 인권 존중과 보호 그리고 실현이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의무임을 규정하여 인권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권이 아래로 부티의 생활밀착형 운동으로 인식된 데는 지자체와 시의회의 관심으로 인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내 지자체와 시민사회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부부처, 인권단체,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HYUN Byung-chul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다시한번 오늘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하여 인권의 가치와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크게 확산 되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2nd Human Rights Cities Forum held in Gwangju in this beautiful month of May, to share experiences and values among global human rights cities.

In this global village and multicultural society, a city has indeed emerged as a new model for human rights, separate from its identity within a nation. This is demonstrated well in the World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which is under discussion in advanced nations including Spain and France as well as in developing nations, and in the European Charter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the City, which has been ratified by 350 European cities.

Korea has also joined this great trend of setting human rights as the core value and norm of city communities and making cities pleasant places to live in, and Gwangju is at the center of such endeavors.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was the first city to establish a Human Rights Office in Korea with a policy goal of becoming a human rights city. It enacted the Charter for Human Rights and the Ordinance on Human Rights, and has pushed for developing indicators and guidelines for human rights cities. As such, Gwangju has been leading the way in the spread of human rights cities. Also, by hosting the Human Rights Cities Forum this year,

the city has provided a venue for sharing global trends and cases while achieving a breakthrough in spread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cities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s.

Lively discussions on human rights cities show that safeguarding human rights is not only the duty of a nation but also of a local government, and that a consensus on the ne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everyday lives has been reached. Furthermore, human rights movements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as the movements from the bottom which are very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This is attributable largely to the interest and support by local governments and city council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ll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local governments at home, and with civil societies, so that their efforts in human rights will bear fruit. In this context, to help human rights cities to take a firm root in our nation, we will pay more attention and provide greater support, by formulating policies for human rights cities and cooperating closely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human rights bod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 once again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Human Rights Cities Forum, I sincerely hope that this forum will serve 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interest in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boost the discussions on these matte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you for being here today and wish you all health and good fortune.

Thank you.

먼저 '인권과 도시' 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게 될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주광역시시의 강운태 시장님과 기초연설자 강경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님, 카렌 체 IBJ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이번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 역시 국경을 가로질러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지구촌 인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및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자연재해, 끊이질 않는 종족간, 인종간 분쟁과 갈등, 그리고 이 모든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산과 이주는 오늘날 인권 보호와 신장의 과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과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도시 차원에서 인권 증진 과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세계인권도시포럼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아가 작년 광주에서 열린 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포럼이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의 역할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 수호의 방벽을 구축한다는 현장의 정신에 따라 창립 이후 일관되게 성인과 청소년의 인권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세계 180개국에 있는 9000여 유네스코 협동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를 통해 전개한 인권교육 확산 활동은 유네스코만의 자랑이자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Chun Taek-soo
Secretary General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아울러 유네스코는 2004년 차별반대도시연합(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차별 타파, 다양성 증진, 상호 신뢰와 대화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은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도시의 매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차별반대도시연합은 인권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또 다른 중대한 기여입니다.

현재 이 도시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아랍,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미 등 6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도시연합에는 19개국 7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총회가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되어 같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과 도시연합 총회는 인권과 차별 철폐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두 도시 네트워크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에서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과제를 추구함에 있어 도시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 모두 포럼 기간 동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fficial inaugurat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held in Gwangju City for an in-depth discussion about human rights and cities. On this occasion, I convey my deepest gratitude to Kang Un-tae, Mayor of Gwangju City, keynote speaker Kang Kyung-wha,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Karen Tse, CEO of International Bridges to Justice. Presenters and panelists, and other participants, a sincer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here!

Today nations worldwide enforce numerous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protect and advance universal human rights. Moreover, the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cross their national borders and stand at the forefront of safeguarding the fundamental freedom and rights of mankind.

But, it is not enough to ensure human rights for every human being here on Earth. With a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limate change, the growing scale of natural disasters, ongoing disputes and conflicts among ethnic and racial groups, and separation and migration of massive populations, we now face grave challenges surround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refore, new approaches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set in motion for the fulfillment of human rights.

Against this backdrop,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has crucial implications as a new type of approach to advance human rights at the municipal level. As Gwangju City holds this forum subsequently after last year's forum, such regular hosting has great significance for the role of cities newly emerging as leading actors in today's global era.

Following the founding spirit manifested in the Constitution of UNESCO : The defense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in the minds of men, UNESCO has continued to enhance the adult and juvenile mindset about human rights from the outset. In particular, over 9,000 UNESCO Associated Schools across 180 nations have become an unrivaled pride and honor for UNESCO through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2004, UNESCO established the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 city inhabited by people with diverse backgrounds, policy development and execution are indispensable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promotion of diversity, and mutual trust and dialogue, and it can enhance the attractiveness and creativity of cities under the spotlight as leading players in this global era. For the sharing of such experience and information, the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llustrates another example of UNESCO's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human rights.

For now, the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enjoys its worldwide presence in six regions across the Asia-Pacific, the Arab world, Africa, Latin America,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has a membership of 19 countries and 70 cities. I am particularly pleased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runs concurrently with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Under the common goal of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this will become a good opportunity to seek cooperation and synergy between two

different networks of cities.

I expect this forum can produce tangible action plans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among cities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oday's global era.

Again, I express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all parties concerned for your thorough preparations for this forum, and I wish you all, from home and abroad, a meaningful and pleasant time during your stay here.

Thank you.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인권 : 자력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2012년 5월 15일-18일
대한민국, 광주

배경 및 개요

2012년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이하 2012 포럼)은 광주광역시시의 이니셔티브로서 2011년 5월 16일-18일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실현 : 21세기 인권도시의 도전 이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열린 제 1회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5월 17일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선언문의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2012 포럼은 5.18기념재단, 한국인권재단,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광주관광컨벤션뷰로로 구성된 세계인권도시포럼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ESCO,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합니다.

주로 '인권도시' 대표단과 유엔인권 전문가, 시민단체, 인권관련 NGO, 국회의원, 국내외 학술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주제 및 인권도시의 개념

'도시와 인권 - 자력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가 이번 회의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 인권적 접근으로 인권도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자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권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행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책무성 기제가 근간이 될 것이며, 이는 광주인권도시선언에서 이행 방법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시'를 '인권이 근본적 가치이자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 차원의 사회 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지역 공동체'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인권도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인권 기준에 입각한 파트너십 정신으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도시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인권도시'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 받는 소수집단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민족적 배경,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 책무성 등과 같은 인권원칙에 부합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및 정책 이행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시민참여'와 '인권교육과 학습'을 '인권도시'의 진정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 또는 전제로 인정했으며, 2011년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에서 채택된 5가지 약속의 이행경험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광주광역시 2012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주최하도록 결정하고 권고했습니다.

의제 및 프로그램 구성

2012년 포럼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 Session 1 : 인권도시 제도와 장치 (광주발전연구원)
- Session II :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한국인권재단)
- 인권도시 도전과제 (한국인권재단,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메인 세션과 함께, 다음과 같은 특별회의도 개최됩니다.

- UNESCO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 국제회의 (UNESCO 아·태사무국)
- 한국 인권 NGO 세미나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NGO기획단)

2012포럼은 모든 도시 거주민 사이의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인권 문화를 향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2011 광주 인권도시선언문' 비전에 뜻을 같이 하는 시장과 인권 활동가들 모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과 광주시의 약속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21세기를 위한 '광주정신'과 함께 광주 인권도시선언 비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City and Human Rights : Promoting Accountability through Empowerment

15-18 May 2012,
Gwangju, Republic of Korea

Concept Note

The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 hereafter 2012 Forum) is an initiative b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promote the further vision of a human rights city as articulated in the Gwangju Declaration on Human Rights City adopted on 17 May 2011 at the first WHRCF held in Gwangju on 16-18 May 2011 under the theme Globalizing Human Rights from Below? Challenge of Human Rights City in the 21st Century?

The 2012 Forum is organized by the WHRCF Promotion Committee composed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Law Center for Public Human Right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Gwangju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with the support of co-sponsor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Ministry of Justice, UNESCO, UN OHCH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Asia Pacific Center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UNESCO Office in Bangkok and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bout several hundred participants mainl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human rights cities', UN human rights experts, civic and human rights NGOs, parliamentarians, as well as academics both from Korea and abroad are expected to take part in the 2012 Forum by bringing their rich experiences and expertise.

Theme and Concept of 'Human Rights City'

The theme City and Human Rights? Promoting Accountability through Empowerment was chosen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idea of a human rights city through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here will be based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nclu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building a human rights city, which are to be discussed as a means to implement the Gwangju Declaration on Human Right City.

At the 2011 WHRCF, 'human rights city' was defined as 'both a local community and a socio-political process in a local context where human rights play a key role as the

fundamental values and guiding principl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 human rights city as human rights governance in a local context' where local government, local parliament, civil society,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inhabitants in a spirit of partnership based on human rights standards and norms.

Participants also understood 'human rights city' meant in practical terms that all inhabitants, regardless of race, sex, color, nationality, ethnic background and social status, and in particular minorities and any other vulnerable groups who are socially vulnerable and marginalized, can participate fully in the decision-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processes that affect their lives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such as non-discrimination, rule of law, participation, empower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articipants also identified 'civic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learning' as a indispensable component or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a genuine vision of a 'human rights city' and resolved to recomme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o organize the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as a platform for the sharing of experiences of implementing the five point action plans adopted at the 2011 WHRCF.

Agenda
and
Program
Structure

The 2012 Forum is mainly composed of three sessions which are as follows;

- Session 1: Institutional Mechanisms to Build a Human Rights City
(organized by the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 Session II: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City
(organized by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 Essay Contest for a Human Rights City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In parallel with the main sessions, there will be several special meetings which are as follows ;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organized by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 Korea Human Rights NGOs Conference (organized by the NGO Planning Team)

The 2012 Forum is a sign of commitment of people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of Gwangju as well as an invitation to all like-minded mayors and human rights advocates to the vision of the 2011 Gwangju Declaration on Human Rights City for promoting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wards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 beyond national and city boundaries among all urban residents and inhabitants. Gwangju is firmly committed to this vision as it is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Gwangju for the 21st century.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일정

일 시		주요 행사		장 소		
5.15 (화)	~	입국 & 래광				
	17:00~18:00	한국 인권 NGO 만남 ✓ ✓		홀리데이 인		
	18:00~18:30	휴 식				
	18:30~20:00	PRE-OPEN				
5.16 (수)	10:00~12:00	개회식 (축하공연, 기조연설)		김대중컨벤션센터		
	12:20~13:30	오찬 (박경서 위원장 주재)		홀리데이 인		
	13:30~14:00	휴식 및 이동				
	14:00~16:00	학술회의 I (인권도시 제도와 장치)		김대중컨벤션센터		
	16:00~16:20	휴식 및 이동				
	16:20~18:20	인권도시 도전과제 ✓	아·태 차별반대 도시회의 I	김대중 컨벤션센터	시청 중회의실	
	18:20~19:00	휴식 및 이동				
19:00~21:00	환영 만찬 (시장 주재)		시청 1층 (로비)			
5.17 (목)	09:00~12:00	학술회의 II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아·태 차별반대 도시회의 II	시청 대회의실	시청 중회의실	
	12:00~12:20	휴식 및 이동				
	12:20~13:30	오찬 (시의회 의장 주재)		홀리데이 인		
	13:30~14:00	휴식 및 이동				
	14:00~16:40	한국인권 NGO 세미나	아·태 차별반대 도시회의 III	시청 대회의실	시청 중회의실	
	16:40~17:00	휴 식				
	17:00~18:00	인권도시선언문 채택/폐회		시청 대회의실		
	18:00~19:00	식사(도시락) 및 이동		버 스		
19:00~20:00	5·18 전야제 참석 ✓		구 도청			
5.18 (금)	09:00~12:00	주변관광 & 5·18 국립묘지 참배		광주근교		
	12:00~13:30	점심식사				

2012 WHRCF Schedule

Date		Key Events		Location	
5.15 (Tue)	~	Arrival			
	17:00~18:00	Meet with Korean NGOs		Holiday Inn	
	18:00~18:30	Break			
	18:30~20:00	Pre-Opening Event			
5.16 (Wed)	10:00~12:00	Opening Ceremony (Congratulatory Address, Keynote Speech)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12:20~13:30	Luncheon (Convened by Chairman Park Kyeong-seo, the 2012 WHRCF Promotion Committee)		Holiday Inn	
	13:30~14:00	Break and Transit			
	14:00~16:00	Session I (Institutional Mechanisms to Build a Human Rights City)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16:00~16:20	Break and Transit			
	16:20~18:20	Essay Contest for a Human Rights C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I)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City Hall Medium Room
	18:20~19:00	Break and Transit		IFL, City Hall (Lobby)	
	19:00~21:00	Welcome Reception (Hosted by Mayor Kang Un-Tae)			
5.17 (Thu)	09:00~12:00	Session II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C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II)	City Hall Grand Room	City Hall Medium Room
	12:00~12:20	Break and Transit			
	12:20~13:30	Luncheon (Convened by Chair of the City Council)		Holiday Inn	
	13:30~14:00	Break and Transit			
	14:00~16:40	Korea Human Rights NGO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III)	City Hall Grand Room	City Hall Medium Room
	16:40~17:00	Break			
	17:00~18:00	Adoption of the Declaration / Closing Ceremony		City Hall Grand Room	
	18:00~19:00	Dinner (Lunch Box) and Transit		Bus	
	19:00~20:00	May 18 Ceremony Evening Festival		Down Town	
	5.18 (Fri)	09:00~12:00	City Tour & May 18 National Cemetery		Gwangju Area
12:00~13:30		Luncheon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세부내용 (5월 15~18일)

5월 15일(화)

일시	주요 행사	장소
17:00 ~ 18:00	입국	홀리데이 인(3층)
	한국 인권 NGO 만남	
	주제 I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 발표 : 여옥 (전쟁없는 세상)	
	주제 II : 한국의 성 소수자 운동 · 발표 : 한채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18:30 ~ 20:00	주제 III : 한국의 청소년 인권운동 · 발표 : 홍지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홀리데이 인 컨벤션 홀(3층)
	주제 IV :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 발표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18:30 ~ 20:00	PRE-OPEN · 진행 :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5월 16일(수)

일시	주요 행사	장소
10:00 ~ 12:00	개회식 - 축하공연 : H.V.C.O 오케스트라 - 개회사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환영사 :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축 사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광조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장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Nets Go! 성금전달 - 기조연설(1) : 강경화 UN OHCHR 부대표 - 기조연설(2) : 카렌 체 IBJ 대표 - 기념촬영 : 기조연설자, 주요 내외빈 등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12:20 ~ 13:30	환영 오찬 (박경서 추진위원장 주재)	홀리데이 인 컨벤션 홀(3층)
14:00 ~ 16:00	학술회의 I (인권도시 제도와 장치) 사 회 :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한국) · 발표(1) : Martina Mittenhuber 뉘른베르크시 인권국장(독일) · 발표(2) : Johanne Savard 몬트리올시 옴부즈맨(캐나다) · 발표(3) : Franck Barrau 낭트 국제인권도시 사무국장 (프랑스) · 발표(4) :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원(한국) · 토론(1) :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한국) · 토론(2) : Samnang Heng 프놈펜 왕립대학교 교수(캄보디아) · 토론(3) : Purusotam Nepal 지방개발부 차관(네팔) · 토론(4) : Chu Li-Si 인권위원장(가오슝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일시	주요 행사	장소
16:20 ~ 18:20	<p>인권도시 도전과제(국제 인권도시 논문 공모전) 사회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한국) · 발표(1) : 송영균 건국대학교 법학과(한국) · 발표(2) : 호&응, the response 팀(한국), 김응철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병호 고려대학교 법학 · 발표(3) : 성대한인권(한국) 신진섭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 이기영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고대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 · 발표(4) : 포울 씨핀 드 구즈먼,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필리핀) · 발표(5) : 조셉 진,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미국) · 발표(6) : 짐콤포레로 차담부카, Advocates' Chambers, Harare(짐바브웨)</p> <p>심사위원장(국내)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한국) 심사위원장(국외) : 찰리 클레멘츠, 하버드 CARR센터 소장(미국) - 심사위원(1) :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 - 심사위원(2) :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한국) - 심사위원(3) : 김중섭 사회학과 교수(한국) - 심사위원(4) :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 심사위원(5) :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한국) - 심사위원(6) : 김명신 서울시의원(한국) - 심사위원(7) :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한국) - 심사위원(8) : 최중환 성북구청 감사담당관(한국) - 심사위원(9) : 김태균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한국) - 심사위원(10) : 정성훈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한국) - 심사위원(11) :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한국) - 심사위원(12) :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소장(한국) - 심사위원(13) : 니라 카테나스, OHCHR Mexico City(멕시코) - 심사위원(14) : 라티프 후세노프,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Chair(아제르바이젠) - 심사위원(15) : 프랭크 바로, SPIDH, Secretary General(프랑스) - 심사위원(16) : 에바 가르시아 추에카,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UCLG, Coordinator(스페인) - 심사위원(17) : 카츄지 이마타, CIVICUS, Acting Secretary General (남아프리카) - 심사위원(18) : 라펜디 자민, AICHR, 인권위(인도네시아) - 심사위원(19) : 마이크 헤이즈, Mahidol University(태국) - 심사위원(20) : 비티 문타본 Chulalongkornl University(태국) - 심사위원(21) : 앤 비트너, SPIDH, Project Coordinator(프랑스)</p>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19:00 ~ 21:00	<p>환영 만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주재) · 축하공연 : 퓨전국악 아이리아</p>	광주시청 1층 로비

5월 17일(목)

일 시	주요 행사	장 소
09:00 ~ 12:00	<p>학술회의II(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사회 :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한국) 발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겸임교수(한국) 총괄보고 : 비티 문타본, Chulalongkorn University, General Rapporteur(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1) :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베이징대 방문교수(한국) · 토론(2) :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 토론(3) :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한국) · 토론(4) : 김광모 부산시 해운대구의원(한국) · 토론(5) :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국) · 토론(6) : 김종섭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한국) · 토론(7) :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 토론(8) :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한국) · 토론(9) : 김명신 서울시의원(한국) · 토론(10) :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한국) · 토론(11) : 최종환 성북구청 감사담당관(한국) · 토론(12) : 김태균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한국) · 토론(13) : 찰리 클레멘츠, 하버드 CARR센터 소장(미국) · 토론(14) : 니라 카테나스, OHCHR Mexico City(멕시코) · 토론(15) : 라티프 후세노프,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Chair(아제르바이잔) · 토론(16) : 프랭크 바로, SPIDH, Secretary General(프랑스) · 토론(17) : 에바 가르시아 추에카,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UCLG, Coordinator(스페인) · 토론(18) : 카쉴지 이마타, CIVICUS, Acting Secretary General (남아프리카) · 토론(19) : 라펜디 자민, AICHR, 인권위(인도네시아) · 토론(20) : 마이크 헤이즈, Mahidol University(태국) -심사위원(21) : 요한 사바스, 몬트리올시 옴부즈맨(캐나다) -심사위원(22) : 루벤 차바보, 로사리오 기억박물관장(아르헨티나) 	광주시청 대회의실(3층)
12:20 ~ 13:30	<p>환영 오찬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주제)</p>	홀리데이 인 컨벤션 I 홀(3층)

일시	주요 행사	장소
14:00 ~ 16:40	한국 인권 NGO 세미나 사회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소장(한국) · 발표(1) :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한국) · 발표(2) :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한국) · 토론(1)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한국) · 토론(2)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한국) · 토론(3)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한국) · 토론(4)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한국) · 토론(5) : Rozali Mohamud 세베랑페라이시 부의장(말레이시아) · 토론(6) : Ruben Chababo 로사리오 기억박물관장(아르헨티나)	광주시청 대회의실(3층)
17:00 ~ 18:00	인권도시 선언문 채택 / 폐회 · 세션요약 - 학술회의 :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원(한국) -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국제회의 : Ms. Srinya Sopia, Program officer UNESCO Regional Office(태국) - 한국 인권 NGO 세미나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소장(한국) - 학술회의 : 라펜디 자민 AICHR Member(인도네시아) · 논문 공모전 시상(강운태 시장) : 수상자 6명 · 인권도시 선언문 채택 : 발표자 6명 · 폐회사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김광조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장 · 기념촬영	광주시청 대회의실(3층)
18:00 ~ 19:00	식사(도시락) 및 이동 ⇒ 구 도청	버스
19:00 ~ 20:00	5·18 전야제 참석	구 도청 앞

5월 18일(금)

일시	주요 행사	장소
09:00 ~ 12:00	주변관광 & 5·18 국립묘지 참배	광주근교
12:00 ~ 13:30	점심식사	델리하우스

2012 WHRCF Detailed Schedule

15th May (Tue)

Time	Key Events	Location
	Arrival	
17:00 ~ 18:00	Meet with Korean NG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me I : Conscientious objectivism in Korea - Presentation : Yeo Ok, World Without War • Theme II : Korean sexual minority movement - Presentation : Hahn Chae-yoon, The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 Theme III : Human rights movement for Korean teenagers - Presentation : Hong Jee-hyo, ASUNARO • Theme IV : Protest against naval base in Gangjungmaeul, Jeju Island - Presentation : Kim Duck-jin,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Holiday Inn Hotel (3FL)
18:30 ~ 20:00	Pre-Opening Event - Moderator : Lee Seong-hoon, Permanent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oliday Inn Convent Hall I (3FL)

16th May (Wed)

Time	Key Events	Location
10:00 ~ 12:00	Opening Cerem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gratulatory performance : H.V.C.O. Orchestra • Opening address : Kang Un-tae, Mayor, Gwangju Metropolitan City • Welcoming address : Yoon Bong-geun, Chairman,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 Welcoming address : Lee Hee-ho, Chair of Kim Dae-jung Peace Center, Kim Gwang-jo, President, UNESCO Asia Pacific Center • Chun Taek-soo, Secretary General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Nets Go! Donation • Keynote address (1) : Kang Kyung-hwa, D.H.C, UN OHCHR • Keynote address (2) : Karen Tse, Founder & CEO, IBJ • Photo Session : Keynote speakers, VIP, etc.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Convention Hall (4FL)
12:20 ~ 13:30	Welcoming Luncheon (Hosted by Park Kyeong-seo, Chairman of the 2012 WHRCF Promotion Committee)	Holiday Inn Convention Hall I (3FL)
14:00 ~ 16:00	Session I (Institutional Mechanisms to Build a Human Rights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Cho Hyo-je, Professor, Sunggongheo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1) : Mittenhuber, Head, Human Rights Office of the City of Nuremberg (Germany) • Presentation (2) : Johanne Savard, Ombudsman, City of Montreal (Canada) • Presentation (3) : Franck Barrau Secretary General, SPIDH, City of Nant (France) • Presentation (4) : Kim Gi-gon, Research Fellow,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Korea) • Debater (1) : Kang Hyun-soo, Professor, Joongbu University (Korea) • Debater (2) : Samnang Heng, Professor,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Cambodia) • Debater (3) : Purusotam Nepal Vice Minister, Regional Development (Nepal) • Debater (4) : Chu Li-Si, Commissioner of Human Right Commission(Kaohsiung)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Convention Hall (4FL)

17th May (Thu)

Time	Key Events	Location
09:00 ~ 12:00	<p>Session II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C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Chung Jin-sung,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Member of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Member(Korea) • Presentation : Lee, Seong-hoon(Anselmo),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Kyunghe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Korea) • General Rapporteur : Mr. Vitit Muntarbhorn, Ch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 Debate (1) : Han Sang-jin,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 Beiji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Korea) - Debate (2) : Ahn Je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Korea) - Debate (3) : Go Eun-tae,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Member(Korea) - Debate (4) : Kim Kwang-mo, Haeundae-gu council, Busan Metropolitan City, Member(Korea) - Debate (5) : Eun Woo-geun,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Gwangju University, Professor(Korea) - Debate (6) : Kim Joong-seop,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sang University, Professor(Korea) - Debate (7) : Chung Young-sun, Chun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Korea) - Debate (8) : Seo Hyung-won, Gwacheon city Council, Gyeonggi-do, Chairman(Korea) - Debate (9) : Kim Myung-shin, Seoul Metropolitan Council, Member(Korea) - Debate (10) : Oh Kwan-young, Center for Good Budget, Executive director(Korea) - Debate (11) : Choi Jong-whan, Seongbuk-gu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City, Director of Audit & Inspection(Korea) - Debate (12) : Kim Tae-kyo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rector of Seoul innovation(Korea) - Debate (13) : Mr. Charlie Clements,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at the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Director(U.S.A.) - Debate (14) : Ms. Nira Cárdena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Mexico, Human rights Officer(Mexico) - Debate (15) : Mr. Latif Huseynov,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Chairperson(Azerbaijan) - Debate (16) : Mr. Franck Barrau, International Permanent Secretariat Human Rights and Local Government(SPIDH), Secretary General(France) - Debate (17) : Ms. Eva Garcia Chueca,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UCLG, Coordinator(Spain) - Debate (18) : Mr. Katsuji Imata, CIVICUS, Acting Secretary General(South Africa) - Debate (19) : Mr. Rafendi Djamin,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Chairperson(Indonesia) - Debate (20) : Mr. Mike Hayes, Mahidol University, Professor (Thailand) - Debate (21) : Ms. Johanne Savard, Ombudsman de Montreal, Ombudsperson(Canada) - Debate (22) : Mr. Ruben Chababo, Museum of Memory in Rosario, Director(Argentina) 	City Hall Grand Room (3FL)

Time	Key Events	Location
12:20 ~ 13:30	Welcoming Luncheon (Presided over by Yoon Bong-geun, Chairman,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Holiday Inn, Convention Hall I (3FL)
14:00 ~ 16:40	Korea Human Rights NGOs Con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Choi Wan-wook, Chief,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Korea) • Presentation (1) : Jeon Jun-hyung, Chair, Jeon 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Korea) • Presentation (2) : Park Yeong-cheol, Secretary General,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ts (Korea) - Debate (1) : Oh Wan-ho, Secretary General, Human Rights Korea (Korea) - Debate (2) : Oh Chang-ik, Secretary General, Human Rights Coalition (Korea) - Debate (3) : Lee Chang-soo, President,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Korea) - Debate (4) : Park Jin, Permanent activist, Dasan Human Rights Center (Korea) - Debate (5) : Rozali Mohamud, Vice-chair, City Council, Seberang Perai (Malaysia) - Debate (6) : Rajiv Narayan (Amnesty International) 	City Hall Grand Room (3FL)
17:00 ~ 18:00	Adoption of the Statement / Closing Cerem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Summary : Session I, Session II , Korea Human Rights NGO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UNESCO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Award-giving for research paper contest • Adoption of the Declaration Closing Rem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ng Un-tae,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 Kim Gwang-jo, President of UNESCO Asia Pacific Center Photo Session	City Hall Grand Room (3FL)
18:00 ~ 19:00	Dinner (Lunch Box) and Transit ⇒ Down Town	Bus
19:00 ~ 20:00	May 18 Ceremony Evening Festival	Down Town

18th May (Fri)

Time	Key Events	Location
09:00 ~ 12:00	City Tour & May 18 National Cemetery	Gwangju Area
12:00 ~ 13:30	Luncheon	Delihouse

기조연설자 | Keynote address

도시와 인권 : 자력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City and Human Rights :
Promoting Accountability through Empowerment



강경화 Kang Kyung-hwa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부대표
D.H.C, UN OHCHR



카렌 체 Karen Tse
국제정의연대 대표
Founder & CEO, IBJ

발표자 | Speakers

세션 I : 인권도시 제도와 장치

Session I : Institutional Mechanisms to Build a human Rights City



마르티나 미텐후버
Martina Mittenhuber
뉘른베르크시 인권국장, 독일
Head, Human Rights Office
of the City of Nuremberg,
Germany



프랭크 바로
Franck Barrau
낭트시 국제인권도시 사무국장,
프랑스
Secretary General, SPIDH,
City of Nant, France



조안느 사바드
Johanne Savard
몬트리올시 옴부즈맨,
캐나다
Ombudsman, City of Montreal,
Canada



김기곤 Kim Gi-Gon
광주발전연구원, 한국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Korea

세션 II :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Session II :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City



이성훈
Lee Seong-hoon(Anselmo)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한국
Executive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orea

인권NGO세미나 : Korea Human Rights NGOs Conference



전준형 Jeon Jun-hyung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한국
Chair, Jeonbuk Education
Center of Human Rights,
Korea



박영철 Park Yeong-cheol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한국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Korea

한국 인권NGO만남 : Meet with Korean NGOs



여옥 Yeo ok

전쟁없는세상, 한국
World Without war, Korea



한채운 Chaeyun Hahn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 Center, Korea



홍지효 Hong jihyo

아수나로, 한국
Asunaro, Korea



김덕진 Kim Duck-jin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한국
Protest against naval base in
Gangjungmaeul, Jeju Island,
Korea

추진위원 | WHRCF Promotion Committee

강운태 KANG Un-Tae
광주광역시장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박경서 PARK Kyung-Seo
Chairman, 2012 WHRCF Promotion Committee

윤봉근 YOON Bong-Geun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Chairperson of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Korea

장휘국 JANG Hwi-Guk
광주광역시 교육감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

김준태 KIM Jun-Tae
5·18기념재단 이사장
Chairpers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Korea

안성례 AN Seong-Rye
오월 어머니집 명예 관장
Honorary Chair, May Mother's Home

조비오 JHO Bi-Ho
광주평화재단 이사장
Chairperson, Gwangju Peace Foundation, m Korea

강신석 GANG Sin-Seok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Executive Representative, Gwangju Peace Forum for
Religion

지 선 Ji Sun
대한불교 조계종 문빈정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Munbin Buddhist
Temple

전택수 JEON Taek-Su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 Committee of UNESCO

김정길 KIM Jung-Gil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 대표
Representative, Gwangju-Jeonnam Branch of
Co-committee for 6.15 Declaration

최영태 CHOE Young-Tae
전남대학교 교수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윤장현 YUN Jang-Hyeon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사장
Chairman,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김준묵 KIM Joon-Mook
한국인권재단이사장 대행
Acting Chairma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원종찬 WON Jong-Chan
광주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
Advis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o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이승환 LEE Seung-Hwan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Director, UNESCO 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orea

정광훈 CHUNG Gwang-Hoon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
Head, Gwangju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자문위원 | WHRCF Advisors

정진성 CHUNG Chin-Sung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서울대 교수)
Member of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정근식 Chung Geun-Sik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성훈 Lee Seong-Hoon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Permanent Director,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조효제 Cho Hyo-Jae
한국성공회대학교 교수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정우탁 Chung Woo-Tak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Chief of Division of Strategic Programme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김영남 Kim Young-Nam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Head,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mmittee, City Council

김재철 Kim Jae-Chul
광주발전연구원 실장
Chief,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이정강 Lee Chung-Gang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장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조상균 Cho Sang-Kyun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서정훈 Suh Jung-Hoon
광주NGO센터장
Chief, Gwangju NGO Center

조영임 Cho Young-Im
광주여성민우회 이사
Director, Gwangju Womenlink

김용목 Kim Yong-Mok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Co-head, Gwangju Federation for the Abolishm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최완욱 Choi Wan-Wook
광주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장
Head of Gwangju Branch,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Differently Abled People's Rights in Gwangju

신경구 Shin Kyung-Koo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Chief,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조상열 Cho Sang-Yul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
Chief, Daedong Cultural Foundation

강성욱 Kang Sung-Wook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Secretary General, Gwangju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사무국 | Secretariat of WHRCF

이경률 LEE Kyung-Ryul
Director

행사기획팀
Planning Team

김병규 KIM Byoung-Gyu
Manager

유근종 YOO Geun-Jong
Specialist

이재욱 LEE Jae-Wook
Specialist

이정선 LEE Jeoung-Sun
Specialist

이명호 LEE Myoung-Ho
Specialist

빈정호 BIN Jeong-Ho
Specialist

행사지원팀
Support Team

김수연 KIM Soo-Un
Manager

김지희 Kim Ji-Hee
Specialist

김민정 Kim Min-Jung
Specialist

최지선 Choi Ji-Sun
Specialist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회식 축하공연 : Congratulatory Performance at Opening Ceremony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 Hearts of Vision Chamber Orchestra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H.V.C.O)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관현악 단으로 2007년 3월 창단되었다.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나사렛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음악감독과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악장을 비롯한 시각장애연주자와 객원 연주자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7월 19일 영산아트홀에서의 창단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기적의 음악',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극찬을 받은 바 있으며, 청와대 초청공연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음악적 재능을 가진 국내·외 장애아동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PROGRAM

1. G. Verdi _ Overture from Opera 'La Forza del Destino'

2. H. Arlen _ Over The Rainbow *암전공연

*암전공연 어둠속에서 눈이 아닌 마음을 통해 음악을 들음으로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체험 공연
(3~4초에 걸쳐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공연이 끝나기 전 모든 조명이 다시 켜집니다.)

3. Lovland & Graham _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 Hearts of Vision Chamber Orchestra (H.V.C.O) was founded in March 2007. It is the only chamber orchestra in the world comprised of visually impaired musicians. H.V.C.O is led by Sangjae Lee, a musical director and clarinetist who earned his PhD from the Peabody Conservatory of Music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at Korea Nazarene University. Members also include concertmaster Jonghun Kim, a graduate of Der Kunste, Berlin and other visually impaired musicians and associate players.

After its successful inaugural concert on July 19, 2007 at Yeongsan Art Hall, HVCO was highly praised as a musical miracle and an orchestra of perfect harmony by the media. The orchestra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a positive image of blindness by performing at various venues including the Blue House and offers a new vision of hope to visually impaired musically-tale.

PROGRAM

1. G. Verdi _ Overture from Opera 'La Forza del Destino'
2. H. Arlen _ Over The Rainbow * To be performed in the darkness
3. Lovland & Graham _ You raise me up

*Performance in the darkness : An experience in total darkness for understanding the limits of blind people and respect them by listening to the music with the heart instead of the eyes. (The lights will begin to fade in gently in three or four seconds. Before the piece ends, all the lights will be on.)

3. Lovland & Graham _ You raise me up



특별출연 테너 : 김백호
Special guest : Tenor Kim Beak-ho

전남대학교 음악과 졸업 • 이태리 페스카라국립음악원 졸업 • 이태리 테라모아카데미졸업 • 오페라 15편 주역출연 및 800여회 음악회 출연 • 현. 호남신학대학교겸임교수, 광주오페라다 운영위원, 쌍투스앙상블리더, 노래사랑나누는 사람들 회장

Graduated from Dept. of Music, College of Ar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d from Accademia Musicale Pescarese, Italy • Graduated from Teramo Accademy, Italy • Performed the leading role in 15 operas and over 800 concerts • Adjunct professor at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operating committee member of Gwangju City Opera, leader of Sanctus Ensemble, chairman of the People Sharing Love of Music



개 · 폐회식 사회자 : 엄주원 아나운서
Opening · Closeing Ceremony Host : Eom Ju-won Announcer

kbc 광주방송 아나운서
kbc 8 뉴스 앵커

환영만찬 축하공연 : Congratulatory Performance at Welcome Dinner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 Fusion Gugak group IRIA



과거와 미래의 • 소통을 통해 • 현대적 감각을 • 더한 국악의 흥과 매력!!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요'에서 차용하여 창작한 이름으로 '나로서 나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국악을 만들어내고자 결성된 음악단체 아이리아는 다양한 음악적 오브제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의 전통음악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국악,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의 빛깔을 전하는 메신저로의 역할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국악의 멋과 흥을 지켜나가는 대표적 공연예술단체로서의 탄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래가 주목되는 예술단체입니다.

PROGRAM

1. Replay
2. 쑥대머리
3. 평화의 노래

Joyful and Attractive Gugak !! A modern touch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past and future!!

The Fusion Gugak group IRIA is making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a youthful and popular music. The name IRIA, meanin I benefit me, comes from Arariyo, the chorus part of Arirang, the famous Korean folk song. The musical group was formed to introduce and play an interesting form of Gugak that makes it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the contemporary world through traditional music. IRIA is creating a new paradigm of traditional music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and integration of various musical objects. As a messenger which relays Gugak in the lives of the public, IRIA has become a representative performance art group that interacts with the public while preserving the beauty and joy of Gugak. The growth of the popularity of IRIA is noteworthy considering its robust development as an art group.

PROGRAM

1. Replay (Premiere)
2. Sookdae Mori (Disheveled hair)
3. The song of Peace

PRE-OPEN 축하공연 : Pre-opening Congratulatory Performance

박영렬 재즈밴드 : Park Young-ryul Jazz Band

박영렬 재즈밴드는 고급스러운 전통 스탠다드 JAZZ에서부터 그루브감 넘치는 잼 밴드, 스타일리쉬한 라운드 뮤직과 애시드 JAZZ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다양한 색채의 JAZZ 음악을 만끽할수있는 팀이다. 관객과 호흡하면서 뮤지션이 느끼는 그때 그때의 감성을 충실하게 쏟아내는 즉흥연주는 관객들에게 JAZZ에서만 맛볼 수 있는 희열을 선사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베이스스트 박영렬(대표, 리더)은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E,Bass기타를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광신대학교 음악대학원 E,BASS기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KT가 주관한 재즈콩쿨에서 KT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JAZZ AND THE CITY라는 주제로 KT ART HALL에서 초청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공연을 하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광신대학교 실용음악과, 광주 과기원 GIST에 출강하고 있으며, 광주 백제예술실용음악학원 원장으로 있다.

The Park Young-ryul Jazz Band has a repertoire with a wide variety of jazz music which is performed for the full enjoyment of the audience, including polished traditional jazz standards, groove-filled jams, stylish all-round music, and acid jazz. Their improvisation sessions, filled with the emotions, the musicians feel in communion with the audience, are performances presenting joy to the audience that is possible to savor only with jazz.

Bass player Park Young-ryul (Representative, Leader) graduated from th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and earned his bachelor's degree in electric bass from the Baekche Institute of the Arts. He earned his master's degree in electric bas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at Kwangshin University.

Park has been active as a perform. He was named a KT Rising Star at the jazz contest hosted by KT in 2008 and was invited to perform at the KT Art Hall under the theme Jazz and the City. He currently lectures at Chonnam University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the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t Kwangshin University, and th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e also heads the Gwangju Baekche Music Academy.

패션디자이너 이호재 보자기아트 : Bojagi Art By Fashion Designer Lee, Hyojae



성북동 길상사 앞 한복 숭 '효재'에서 혼수 한복 짓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하나로 온갖 것 예술처럼 싸는 보자기 아티스트이다. 살림만큼 창조적인 일이 없다면 입는 거, 먹는 거, 집 꾸미기까지, 사소한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주부로 살다 보니 '살림의 여왕' '한국의 마사 스텐다' '한국의 타샤 튜더' '자연주의 살림꾼' 등 온갖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로서, 이 시대 여자들의 로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자기 아트로 문화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녀는, 환경재단 주최로 폭스바겐을 보자기로 싸는 퍼포먼스, 세계적 화장품 업체 크리니크의 2009년 신상품 런칭 쇼에 화장품을 보자기로 싸는 퍼포먼스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준비 중인 배용준과 함께 한국의 의·식·주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보자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아이들 동화책을 쓰고 싶은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으로 살림하며, 더

나이 들면 꼭 만화를 그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지은 책으로 『효재처럼』 『효재처럼, 보자기 선물』 어린이 동화책 『나는 치마저고리가 좋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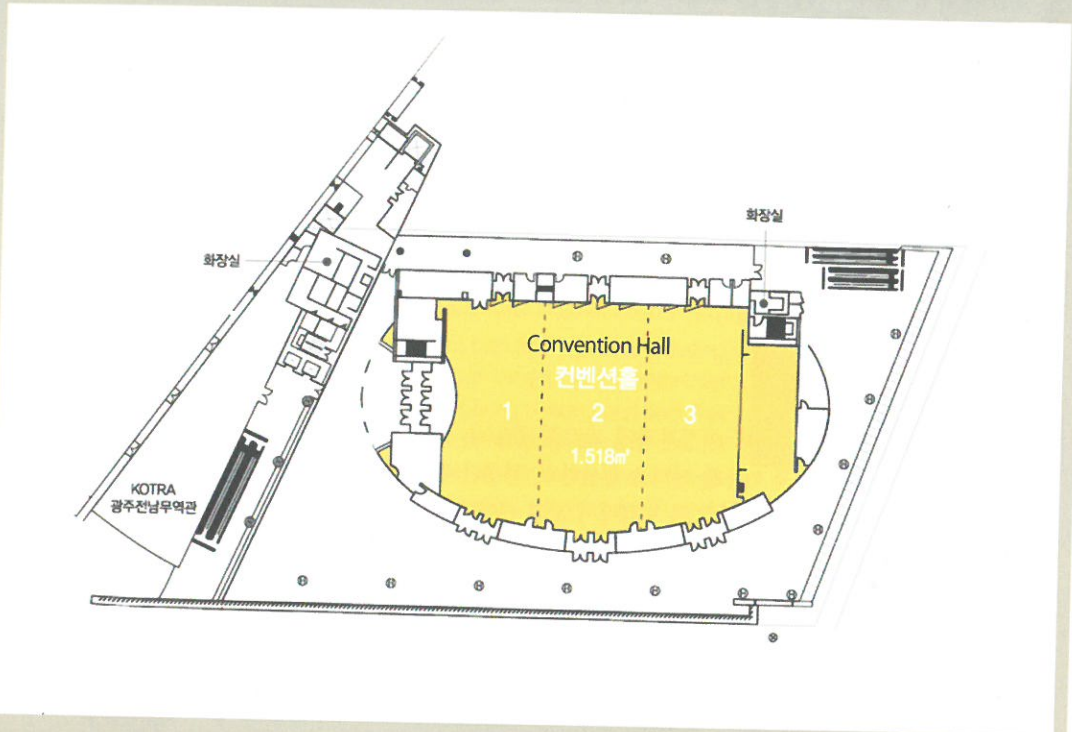
Ms. Lee, Hyojae is well known as a designer of hanbok (traditional Korean clothing) who runs the hanbok shop called Hyojae right across from Gilsangsa Temple in Seongsbuk-dong, Seoul. She has also made a name for herself as a bojagi (traditional Korean wrapping cloth) artist who produces all kinds of artworks with bojagi. In the belief that nothing is more creative than housekeeping, Ms. Lee embodies a creative homemaker who arouses something beautiful from mundane daily routines, ranging from clothing, food, to home decoration. She has acquired a number of nicknames like Queen of Housekeeping, the Martha Stewart of Korea, the Tasha Tudor of Korea, and a Naturalist Homemaker, and is enjoying a reputation as a true life stylist of our times with her enormous popularity among women.

As her bojagi art has gained considerable momentum in the cultural arena, Ms. Lee came under the spotlight through her bojagi performance with Volkswagen hosted by Korea Green Foundation as well as her bojagi event at the 2009 new product launch showcase for the global cosmetic brand Clinique. To publicize Korea's food, clothing, and housing across the globe, she collaborates with Korean actor Bae, Yong-joon, who is releasing a book series about traditional Korean culture. With her joyful plans for worldwide publicity about her bojagi art in addition to fairy tale writing for kids, Ms. Lee, Hyojae envisions that she can return to a mountain in her old age to enjoy natural housekeeping and write comic books. Her publications include Like Hyojae, Like Hyojae : Bojagi Giftwrapping, and the fairy tale I Like Chima Jeogori (traditional Korean outfit consisting of a chima skirt and jeogori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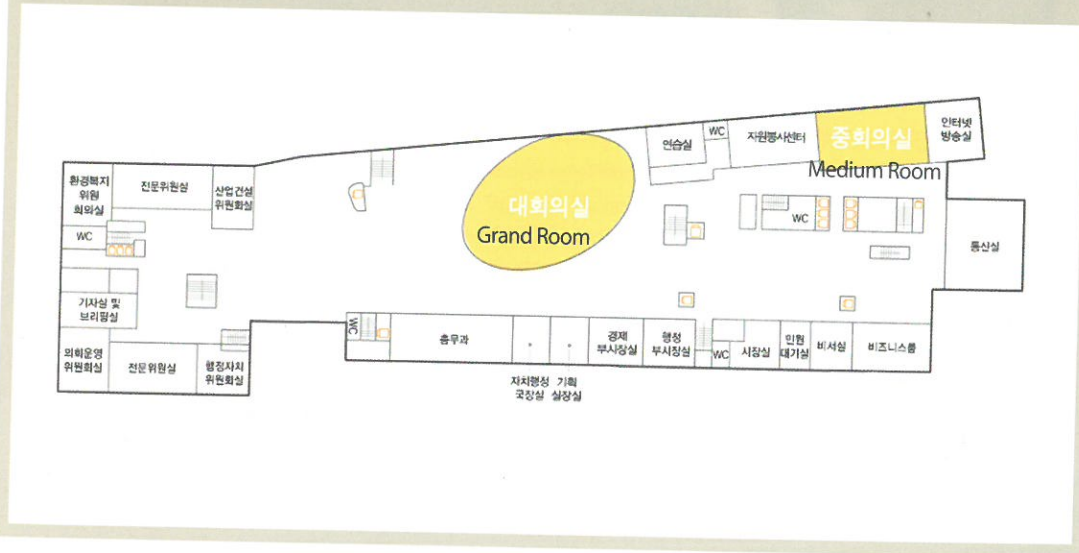


보자기아트 참가자 : 문철희, 안점숙, 고순옥, 고재순, 권경원, 나금주, 서용금, 황미숙, 황미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Convention Hall(4FL)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3층) | Gwangju City Hall, Grand Room(3FL)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은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신음하는 제3세계 국가의 민주인사들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질서 정연한 시민의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방문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도시답게, 광주는 행사개최 기간 동안 디자인 비엔날레, 정음성국제음악제, 광주김치축제 등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가 개최되어 방문을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친환경 모범도시

금싸라기 땅인 도심 공공기관 이정부지에 과감히 공원을 조성하고, 철도 폐선부지에 푸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매립가스를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고, 환경단체·기업체·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탄소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서 20분 거리에 자연 생태계가 복원된 아름다운 무등산 자연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능력이 입증된 도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G20차관회의, 광주세계광엑스포 등 커다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13년 광주세계공예엑스포, 2014년 광주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의 도시

광주는 에너지 절약의 핵심기술인 LED를 비롯한 광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세계 15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최대 광산업 도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태양전지 개발 등을 통해 환경기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A Sacred Land of Democratization and a City of Democracy, Human Rights, Peace

The history of this virtuous village continued from the honorable troops movement in the late Korean Kingdom to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s a result, Gwangju has been recognized as a city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n particula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resistance against military rule, set an example for many Asian countries who are aspiring freedom and justice. The Nobel Peace Prize Laureate Summit and a Women's Forum in 2006 and 2007 respectively offered opportunitie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spirit of Gwangju,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around the world.



A Window on Asian Culture and a Cultural Hub of World

Gwangju is a city of the arts and has given birth to many artists including masters of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song, Lim Bangul, Oriental Painter Uijae Huh Baekryun. Chinese modern musician, Chung Uelsung, and poet Park Youngchul. On top of this, Gwangju hosts the Gwangju Biennale and the Design Biennale, which are international festivals of modern art and design, transforming itself as a cultural hub of Asia. Gwangju, with this cultural competitiveness, has tried to renew itself as a hub of Asian culture through a long-term project (from 2003 to 2023). If the National Asian Culture Hall opens to the level of Pompidou in 2012, Gwangju will move toward being the cultural hub of the world. *5 major festivals of Gwangju : Gwangju Biennale, Gwangju Design Biennale, Gwangju Kimchi Festival, Im Bangul Korean Traditional Music Festival, and Gwangju Jeong Yul-s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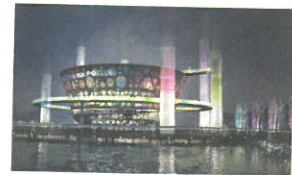
Environmentally-Friendly Cutting-edge City, a Hub of Asian Culture

Gwangju is the leading city of the Honam region, which is being sought for its cutting-edge industry and culture, and a core middle city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western region. For a long time Gwangju has been known as a hometown of justice, art and beauty because citizens have never turned a blind eye to injustice and enjoy art, flavor and taste.



Environmentally-friendly High Tech Industrial City, and a Science Park in Northeast Asia

Gwangju is opening a new era with the environmentally-friendly future high tech industry. It has nurtured next generation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high tech components, new energy, design and culture content along with automobiles, digital electronics, and photonics, developing as a high tech industrial area 21st Century Northeast Asia. In addition, Gwangju has planted about 10 million trees all across the city, and became the first city to forge a UN City Environment Convention in Korea in order to cut greenhouse gases and make itself a green city. Gwangju, with its harmony among culture, nature, and industry, has tried to realize the dream of being a global city that attracts attention in the 21st Century. Gwangju's global events: 2010 International Photonics Expo, 2011 International Environment Expo, 2014 World Hydrogen Energy Convention, 2015 Summer Universiad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발행일 · 2012년 5월 15일 | Date · 15th May, 2012
발행인 · 강운태 | Publishers · KANG Un-tae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인권담당관실 · 전화. 062)613-2070 / 전송. 062)613-2069
Gwangju City : 111 Naebangro, Seo-gu, Gwangju, Korea · Tel. 82-62-613-2070 / Fax. 82-62-613-2069
<http://humanrightscity.net>

2012 세계인권도시 행사관련 문의
Information Contact Number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062) 613-2070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Promotion Committee 062) 613-2070

홀리데이인호텔 062) 610-7000
Holiday Inn Hotel Information Office 062) 610-7000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http://www.gwangju.go.kr>
<http://humanrightscity.net>